

이었는데, 조별우이를 포함해서 多量으로出土된 것이다. 靑磁는 이따  
白磁好尙으로 들어선 李朝의인 時代感覺앞엔 아마도 한가닥의 鄉愁에  
不過했을듯 그후 一般的인 普及도 量産도 企圖되지는 않았던듯 싶다.

四

이道馬里 가마는 아마도 李朝初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中央官窯의  
하나로서 李朝靑華의 始源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當時 數百個所의 많은 全國의 磁器所 陶器所를 實質的으로 指導하고 있  
던 하나의 規範가 되었음으로 요섯말로 하면 中央陶藝센터라고 할 수  
있을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全國地方 가마에서 生産하는 모든 가  
마는 器形과 裝飾圖文等의 源泉을 이러한 가마들에 두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이 가마에서 出土되는 白磁器들의 器皿樣式을 觀察해보면 거의  
明朝의 器皿樣式이 길게 導入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器皿制式은  
곧 이렇게 全國의 陶窯에 影響했던 것은 勿論이다. 이 發掘은 崔淳雨主  
管으로 鄭良謨 俞門龍 李准求 李亨球 등이 參加했으며 僚友 鄭良謨氏의  
刻苦한 努力에 힘입은 바 크다.

〔註〕 笠井周一郎「李朝染付」一五六面參照 一九四二年刊 東京 寶雲舎

洛東江口東岸의 貝塚

朴 商 憲

「韓國의 나일」이라고 불리우는 洛東江 江口 沿岸은 農耕과 漁撈生活  
에 從事하기 좋은 곳이며, 介貝類가 特히 豊富한 곳이다. 이 江口 東岸  
을 數次踏査한 下端——多大浦間(沿岸距離 約一〇km)에서 確認한 貝  
塚址 몇 곳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1) 槐亭洞 貝塚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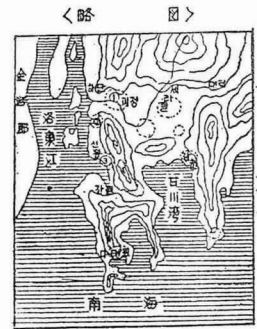
이 貝塚은 出土品 數點이 傳해오는 關係로 ① 그 存在가 認定되어  
왔으나 位置와 內容이 不詳이던 것인데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그 位

置를 槐亭洞에 있는 두 그루  
의 큰 古木(槐) 中山麓가까  
이에 있는 古木을 中心한 一  
帶(槐亭洞 九〇三—九〇六  
番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理由는 첫째 本洞中이  
곳에 局限하여 地中에 貝殼  
이 豊富하다는 點이다.  
約 四千戶에 達하는 各家

戶의 埋안과 田畝等 全面的으로 調査해 보았으나 단곳에는 貝殼의 埋  
藏이 없었다. 또한 古老들의 말씀도 이 地帶에 집터를 닦을때나 우물  
을 팔때 또는 道路工事를 했을때에 地中에 貝殼이 「無盡藏」으로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筆者가 이곳에서 破壞된 赤色土器 一點 ②과 土器片 等 數  
點을 採集한 바 있는데 이것이 傳 槐亭洞 貝塚出土品 ③과 같은 種類  
라는 點이다.

세째로는 이곳 地形에서 本考察이다. 九德山줄기(세리곶)에서 물근  
원하여 本洞의 中洞의 中央을 흘러서 下端 洛東江으로 빠지는 河川을  
調査해보면 지금은 流幅이나 水量이 보잘것 없으나 옛날에는 오늘날보  
다 넓고 水量도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이 水源은 매우 좋아  
서 現在 私設水道의 水源池가 되었다. 貝塚址로 推定되는 곳은 이 河  
川보다 苦干 높은 山麓 臺地에 東南向하여 있었을 것으로 본다. 뒤에  
는 北西風을 막아주는 山이 屏風처럼 둘러지고 그 한줄기가 西쪽으로  
떨어서 洛東江風을 막아 주고 있으며 이 山모퉁이를 돌면 洛東江 三  
角洲가 눈앞에 展開된다. 한편 河川이 흐르는 앞을 건너편에는 바다와  
의 사이에 낮은 山이 防波堤처럼 길게 가로 놓여서 거센 海風을 막아주  
고 있다. 이 丘陵같은 山을 넘어서면 南海 甘川灣이다. 그러니까 江과  
바다가 모두 가까운 곳이다. 이와 같은 마치 작은 盆地 모양의 地形을  
山上에서 내려다 볼때 亦是先史住居地는 前記地點이었을 것이라는 判



① 槐亭洞貝塚址 ② 下端洞塚址  
③ 新坪洞貝塚址 ○ 赤色無紋土器片散在地

斷이當然히 내려진다.

以上 세가지理由에서 이 곳을 槐亭洞 貝塚址로 推定하는 바이다. 元來 小規模였을 것이며 廢滅의 原因은 下端 道路工事와 住宅地化한 데 있는 듯 하다. 따라서 地表에 變化가 많았다고 보며 筆者 採集品도 原位置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모두 地上에서 採集한 것이다. 또한 傳 槐亭洞 出土品①도 一九三二年 採集으로 記錄되어 있으니 下端 道路工 事以後의 採集品이라고 볼때 亦是 地上 採集品이 아니었을까?

이 地方에는 前記場所以外에도 大峙밑 세리골 河川邊 一帶와 天主 敎會뒤 山麓一帶 그리고 山을 넘어서 海邊인 火電으로 가는 附近等 地에서 同類의 土器片을 散見할 수 있으나 貝塚의 흔적은 보이지 않 는다(이 一帶의 遺蹟에 對하여는 다음에 綜合的으로 紹介할 豫定인). 이 地方에는 釜山市內에서 나오는 貝殼이 섞인 塵芥物을 土地改良을 目的으로 農土에 덮인 곳이 많아서 到處에 貝殼이 散在하여 踏査者를 疲困케 하는 例가 있다.

(2) 下端洞 貝塚

釜山에서 金海 三角洲를 건너가는 下端津에서 갈밭을 따라 約三〇〇m쯤 내려가면 U字形의 좁고 아늑한 山谷이 나타난다. 「모래구찌」라고 俗稱되는 이곳에는 現在 山谷에 一〇餘戶가 있고 그 아래로 江 岸까지 農地化되어 있으나 옛날에는 江水가 깊이 들었던 모양으로 江 岸에서 좀 올라간 곳까지 모래와 海岸石이 地下에 묻혀있다. 이곳 東 便 山麓에 貝塚이 있다. 筆者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때는 一部 農地化 되기는 했어도 그대로 保存된 狀態였는데 얼마 後에 住民들이 貝殼을 採集 搬出하여 某石灰工場에 賣却하고 거의 바닥이 들어나 버렸다. 이곳 新坪洞에서 地中에 埋藏된 貝殼을 賣却하는 것을 보고 自己들도 그리했다는 얘기가 있다. 筆者는 아쉬운 마음으로 附近을 ammel며 赤色土 器片과 器柄(牛角形)等 數點을 採集하고 貝殼의 規模를 略測한 바 있 다. 貝塚下端에서 採集한 土器片은 平底直徑五〇cm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었고 貝殼分布地域(面積은 約 一一〇〇m<sup>2</sup>되나 堆積部分은 狹少했 을 것이며 最深部는 約 三m가량)으로 推測되었다.

(3) 新坪洞 貝塚

下端洞 貝塚에서 江邊을 따라 한 二〇分 가량 山麓을 돌면 視野에 넓은 干拓地가 展開된다. 一九三九年에 堤防을 쌓아서 이곳을 農地化 하기 以前에는 江水(實은 海水)가 든 넓은 干瀉地로서 干潮時에는 貝 類採取가 잘 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 西北 山麓에 南向한 마을(新坪洞 古名, 望後村)이 있고 그 앞 작은 丘陵(俗稱 「조개모래」)에 貝塚이 있 었으나 亦是 前記한 바와 같이 이곳 地主가 貝殼을 賣却하여 石灰工 場으로 二〇餘畝를 搬出했다는 것이다. 貝塚은 흙이 別로 섞이지 않 고 깨끗한 貝殼이 곽차있었으며 따라서 遺物(赤色土器片)도 數點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略測한 바 長徑約 一八m 幅約 六m 最深部 地下約 三m 程度였다. 그 後 이곳을 工場敷地로 쓰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버려 서 現在는 附近에 無數히 흩어진 貝殼片을 볼 뿐이다.

以上 一連의 貝塚들을 大略 紹介했으나 稀少한 地上 採集品만으로 는 그 性格을 말할 수 없는 것이 遺憾이다. 다만 以上 三個 貝塚 出土土 器片은 같은 것들이며 近接한 距離에 있는 江口海岸의 多大浦, 貝塚 에서 나온 櫛文土器나 朱塗磨研土器 등이 한 판도 보이지 않았다. 對岸 인 金海나 熊川地方과의 關係도 생각해 보고 싶으나 早急을 避하고 앞 으로 繼續 調査하며 考察해 보려고 한다.

註

- ① 現在 東亞大 博物館에 收藏되어 있음(一九三三年 採集品).
- ② 口緣部가 地上에 露出되어 缺失되었고 下半部도 破壞되었으나 原 形대로 表土中에 박혀있었으므로 復原하여 器形推定이 可能하다. 此 土器에 關하여는 다시 考察하여 다음 機會에 紹介한다. 아울러 槐亭洞 貝塚의 年代까지도 생각해 보려고 한다.